

조선통신사 수창시(朝鮮通信使 酬唱時)*

번역 및 역주: 홍 인 국**

이 자료는 1682년(숙종 8년) 조선통신사가 본격적으로 문화사절단 역할을 맡았던 임술사행에서 이뤄진 문학교류를 보여주는 기록물로, 8월 29일에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제술관 성완(成琬, 1639~?)과 이담령(李聃齡, 1598~1662), 홍세태(洪世泰, 1653~1725) 등이 일본의 유학자 야마다 겐킨(山田原欽, 1666~1693)과 주고받은 시를 모아 1683년 필사한 것이다. ‘천화(天和)’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때 사용된 연호로, 천화 2년인 1682년 8월 29일과 9월 2일 양일간에 걸쳐 일본인 산전희(山田熙)가 조선통신사 일행과 수창(酬唱)한 시를 기록하였다. ‘수창(酬唱)’은 시가(詩歌)를 주고받으며 부른다는 의미이다.

바다라는 지리적 장애물을 넘어 만난 이들이지만 서로에게 느끼는 낯섦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조선의 시인이 신선이 타는 배와 말을 타고 와서 일본 도처에 새로운 흥취를 일으킨다(仙查驛馬載詩人到處定知發興新).’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 문인들에게 조선통신사와의 만남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고 흥미로운 신선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나라 사람의 만남, 연령차가 있는 사람의 만남, 문화적 우열의식이 있던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만남 뒤에 이별이 있었기에 그 아

* 이 글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중,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자료로 1682년(숙종 8년) 조선통신사와 일본 문인이 주고받은 수창시(酬唱時)를 번역, 해제한 것을 보완하였다.

** 동덕여대 국사학과 강사, ratio1@dongduk.ac.kr

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각 작품의 내용은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 초면의 인사(人事)들이 마주한 자리에서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상호 칭찬으로 이어지는 단순함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시축(詩軸) 뿐 아니라 수창시의 보편적 성격 가운데 하나로, 담고 있는 내용이나 가치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기록이라는 점, 이 시축의 작품들을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매우 귀중하다. 저명(著名)한 인물들의 자료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잘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축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자료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자료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문화와 역사는 시대의 주류(主流)에 편중되면서 많은 여백을 남길 수밖에 없다. 주변인(周邊人)들의 자료가 여백을 채울 때 문화와 역사는 풍부해질 수 있으며 실체에 보다 더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시축은 1682년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일행의 행적과 활동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향후 자료의 가치에 걸맞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자주]

조선통신사 수창시(朝鮮通信使 酬唱時)

두인(頭印) : 불원복(不遠復)¹⁾

천화²⁾ 2년 8월 29일 한객³⁾과의 수창⁴⁾

天和二年八月廿有九日 韓客酬唱

삼가 학사 이공⁵⁾에게 드리다

奉呈學士李公案

복헌(復軒)⁶⁾

-
- 1) 불원복(不遠復) :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잘못을 깨닫고서 금세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 <복괘(復卦) 초구(初九)>에 “멀지 않아서 되돌아오니,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크게 좋을 것이다.[不遠復, 无祇悔, 元吉.]”라고 하였다. 이 자료에 복헌(復軒)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호에 ‘복(復)’ 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글자의 의미를 《주역》의 이 글에서 취한 것이다.
 - 2) 천화(天和) : 일본의 덕천막부(德川幕府) 때 사용된 연호 가운데 하나로 1681년부터 1683년에 해당한다. 이 자료는 1682년(숙종8) 조선에서 파견된 통신사(通信使) 일행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천화 2년은 1682년이다.
 - 3) 한객(韓客) : 삼한(三韓)의 손님이라는 뜻으로 조선에서 온 통신사(通信使) 일행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 자료에 등장하는 세 사람, 즉 성완(成琬), 이담령(李聃齡), 홍세태(洪世泰)를 가리킨다.
 - 4) 수창(酬唱) : 시가(詩歌)를 서로 주고받으며 부른다는 의미이다. 복헌(復軒)이 성완(成琬), 이담령(李聃齡), 홍세태(洪世泰)와 주고받은 시를 적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 5) 이공(李公) : 이담령(李聃齡)으로, 호는 반곡(盤谷)·봉명(鵬溟)·한주거사(漢洲居士)이다. 나머지 인적사항은 자세하지 않다.
 - 6) 복헌(復軒) : 이 자료를 생성한 일본인으로, 이 자료의 기록에 의하면 성은 산전(山田), 자는 원흠(原欽), 이름은 희(熙)이다. 스스로 당시 나이가 16세라고 하였다. 1682년 8월 29일 현재의 야마구치(山口)현에 있던 다이묘(大名) 마쓰다이라나가토노카미(松平長門守)라는 사람이 통신사 일행과 복헌의 만남을 주선하여, 복헌이 통신사의 숙소였던 혼세이지(本誓寺)에 와서 학사들과 시를 주고받았다. (미노와 요시쓰구(箕輪吉次), 『天和二年(1682)의 朝鮮通信使』, 『아시아문화연구』 6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121면 참조.)

배⁷⁾와 역말로 시인을 모시고 올 적에
이르는 곳마다 이는 흥취 새로웠으리니
푸른 바다와 흰 구름 이런저런 풍경을
금수에 더해 지어 정균을 배웠으리⁸⁾

仙查驛馬載詩人
到處定知發興新
滄海白雲多少景
添裁錦繡學庭筠

7) 배 : 선사(仙查)는 본래 신선의 뗏목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배, 또는 사신이 타는 배를 의미한다.

8) 푸른……배웠으리 : 통신사 일행이 바다를 건너고 역말을 타고 오면서 본 아름다운 풍광을 시로 지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금수(錦繡)는 금수간장(錦繡肝腸)과 같은 말로, 뱃속에 시문(詩文)이 가득 들어 있다는 말인데, 글을 멋지게 짓는 것을 뜻한다. 이 백(李白)의 심간(心肝)과 오장(五臟)이 온통 금수로 되어 있다고 찬탄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정균(庭筠)은 당(唐)나라 시인 온정균(溫庭筠)을 가리킨다. 그는 시를 민첩하게 잘 지었는데, 그가 손으로 깎지를 여덟 번 끼는 동안 여덟 수의 시를 지었으므로, 그를 온팔차(溫八叉)라고 불렀다는 고사가 전한다. 《北夢瑣言 卷4》

삼가 복헌의 시에 맞춰 짓다

奉次復軒詞案

이봉명(李鵬溟)⁹⁾

하늘이 장관을 문인에게 맡기시니

天教壯觀屬詞人

빼어난 풍광 가는 곳마다 새롭구나

特地風烟到底新

빈 객관에 찾아와 나그네 꿈 깨우는데

虛館枉來驚客夢

베갯머리에 서늘한 바람소리 달빛 젖은 대숲에서 울리네

枕邊寒韻月霜筠

9) 이봉명(李鵬溟): 이담령(李聃齡)이다. 1쪽 각주5 참조.

거듭 앞의 시에 맞춰 지어 이 학사¹⁰⁾에게 올리다
重次前韻奉李學士

이제 이 세상의 빼어난 분을	自是乾坤許俊人
멋진 자리에서 보니 좋은 글 ¹¹⁾ 새롭구나	雅筵逢接玉篇新
원홍의 여린 깃은 본래 비교되기 어려워 ¹²⁾	鵠鴻弱羽元難較
홀륭한 시를 감상하며 이슬 내린 대숲을 지나가네	奇弄高吟過露筠

임술년(1682, 숙종8) 가을에 복헌(復軒)

10) 이 학사(李學士) : 이담령(李聃齡)을 가리킨다. 1쪽 각주5 참조.

11) 좋은 글 : 옥편(玉篇)은 주옥(珠玉)같은 글이라는 말로, 이담령이 복헌(復軒)에게 준 시를 가리킨다.

12) 원홍(鵠鴻)의……어려워 : 복헌(復軒)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겸사(謙辭)로 낮추어 말한 것이다. 원홍은 본래 원추새와 기러기로, 이 새들은 날아갈 때 순서가 있으므로 조정의 반열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복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거듭 복헌의 시에 사례하다

重謝復軒詞案

그대 만나자 객지의 시름 사라지니	看君頓失客中愁
옥과 눈처럼 맑은 의표 세속 사람과 다르구나 ¹³⁾	玉雪淸標拔俗流
이역의 우연한 만남 하늘이 준 기회이니 ¹⁴⁾	異域萍逢天借便
금낭에 풍월을 주고받게 되었네 ¹⁵⁾	錦囊風月許相酬

그대의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참신한 글과 유려한 글씨가 발군의 솜씨이며 세태를 벗어난 것이 사랑스럽다. 신선 같은 자품과 수려한 용모는 또한 강동(江東)의 가장 빼어난 사람이라고 하겠다. 거친 글을 남겨서 훗날 얼굴을 떠올리게 하고, 또 아름다운 시¹⁶⁾로 화운해 주기를 요청한다.

임술년(1682, 숙종8) 중추(仲秋)에
한주거사(漢洲居士) 봉명(鵬溟)¹⁷⁾이 쓰다.

-
- 13) 옥과……다르구나: 복헌(復軒)의 자질이 빼어나 속세의 사람과 다르다는 말이다.
- 14) 이역(異域)의……기회이니: 일본에서 이담령이 복헌을 만난 것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한 것이다. 평봉(萍逢)은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만난다는 뜻으로, 객지에 서의 만남, 또는 우연한 만남을 의미한다.
- 15) 금낭(錦囊)에……되었네: 이담령과 복헌(復軒)이 시를 주고받게 되었다는 말이다. 금낭은 비단 주머니라는 뜻으로, 시를 넣어두는 주머니를 의미한다. 당(唐)나라 시인 이하(李賀)가 매일 아침 동료들과 함께 나가 노닐 때, 종에게 다 해진 비단 배낭을 등에 메고 따라오게 하면서 시상(詩想)이 떠오르는 대로 써서 그 배낭 속에 넣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해낭(奚囊) 또는 시낭(詩囊)이라고도 한다. 《昌谷集李長吉小傳》
- 16) 아름다운 시: 경운(瓊韻)은 상대방의 좋은 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시경(詩經)》 <목과(木瓜)>에 “나에게 목과를 주거늘 경거로써 갚고 싶나니, 굳이 보답하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네.[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 匪報也, 永以為好也.]”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 17) 한주거사(漢洲居士) 봉명(鵬溟): 이담령(李聃齡)을 가리킨다. 1쪽 각주5 참조.

차운하여 한주공¹⁸⁾께 드리다

次韻奉漢洲公案下

복헌(復軒)

새 시 받아 보자 시름 사라지니	新詩入眼破吾愁
그 웅심함 대단한 학자임을 알겠네	料得雄深極學流
연석은 본래 도자의 물건 아니라서	燕石元非韜籍物
연성과 백벽에 끝내 수창하기 어렵네 ¹⁹⁾	連城白壁竟難酬

18) 한주공(漢洲公): 이담령(李聃齡)의 호이다. 1쪽 각주5 참조.

19) 연석(燕石)은……어렵네: 자신의 재주가 부족하여 이담령의 훌륭한 글에 수창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겸사(謙辭)로 한 것이다. 연석(燕石)은 연산(燕山)에서 나오는 돌이다. 옛날 송(宋)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이 돌을 오대(梧臺)의 동쪽에서 얻고는 큰 보물이라 여겨 비단으로 몇 십 겹을 싸서 잘 보관하였으나 결국 일반 돌과 다름이 없었다 한다. 여기서는 복헌 자신을 연석에 비유한 것이다. 《太平御覽 地部》도자(韜籍)는 도자(韜籍)로도 쓰는데, 신주독(神主櫝)을 씌우는 짐으로, 위와 측면 부분을 도(韜)라고 하고 바닥 부분을 자(藉)라고 한다. 여기서는 소중한 물건의 뜻으로 쓰인 듯하다. 연성(連城)은 연성벽(連城壁)과 같은 말로, 화씨벽(和氏璧)을 말한다. 전국 시대 때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15개의 성(城)과 맞바꾸자고 요청한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史記 廉頗傳》백벽(白璧)은 희고 티가 없는 옥으로, 여기서는 연성과 함께 이담령의 시를 훌륭하게 평가하여 이렇게 부른 것이다.

삼가 복헌에게 주어서 화운을 요청하다

奉呈復軒要和

멋진 글솜씨 진림이라 하겠고²⁰⁾

翩翩書池許陳琳

깨끗하기는 바다에서 나온 산호갈네²¹⁾

皎若珊瑚出海心

문득 화려한 집에서 만나 먼저 눈길 가니

忽遇華軒先目擊

담소하며 시구 읊조린들 어떠하리

不妨談笑短長吟

취허(翠虛)²²⁾

20) 멋진……하겠고 : 복헌(復軒)의 글이 훌륭하다는 말이다. 진림(陳琳)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 사람으로, 건안칠자(建安七子)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원소(袁紹)의 밑에 있을 적에 격문(檄文)을 지어 조조(曹操)의 죄상을 나열하며 신랄하게 꾸짖었는데, 원소가 패망하여 조조에게 귀순하였을 때에, 조조가 그의 문재(文才)를 아껴 처벌하지 않고 기실(記室)로 삼았던 고사가 전한다. 《三國志 卷21 魏書 陳琳傳 註》

21) 깨끗하기는……갈네 : 복헌(復軒)의 맑은 용모를 비유적으로 읊은 것이다.

22) 취허(翠虛) : 성완(成琬, 1639~1710)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백규(伯圭), 호는 취허이다. 아버지 이후룡(李後龍)은 참봉을 지냈고, 어머니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김상헌(金尙憲, 1561~1637)의 딸이다. 1639년 3월 28일에 태어났다. 남노성(南老星, 1603~1667)에게서 《사략(史略)》을 배우고, 정두경(鄭斗卿, 1597~1673)에게서 《사기(史記)》와 《장자(莊子)》 등을 배웠다. 1666년(현종7)에 아우와 함께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관직에 뜻이 없어서 강령현(康翎縣, 현재의 황해남도 강령군 지역)에서 지냈는데, 1682년(숙종8)에 왜인(倭人)들이 통신사(通信使)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당시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圭, 1634~1684)가 대제학으로 있었는데,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글에 의하면 “문학에 뛰어난 인재를 엄격하게 선발하여 보내고자 하였으나 적임자를 얻기가 어려웠다. 공의 이름을 듣고 정성을 다해 불러내고자 하였다.[欲峻選文學士而送之, 顧難其人, 聞公名, 懇懇欲致之.]”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의 문학적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성완은 나라의 일을 마다할 수 없어 한양으로 갔는데, 당시 문학에 뛰어난 이들이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별서(別墅)에 있는 청취각(淸曄閣)에 모여 성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완은 그들 앞에서 글을 지었는데, 그 글이 매우 뛰어났으므로 김수항이 곧바로 숙종에게 아뢰어 저술관(著述官)으로 통신사 일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윤지완(尹趾完, 1635~1718)이 상사(上使), 이언강(李彦綱, 1648~1716)이 부사(副使), 박경후(朴慶後, 1644~1706)가 종사관(從事官)이었다. 일본에 갔을 때 그는 글을 매우 신속하게 지었으므로 왜인들이 “옛날 조자건은 일곱 걸에 만여 시를 지었는데, 공은 서너 걸에 지으시겠습니다.[昔曹子建有七步詩, 公乃三四步而就之耶.]”라고 하였다. 글씨도 잘 썼기 때문에 왜인들이 은화(銀貨)를 주고 구입하려 했지만 성완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 조정에서 성완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승문원 제술관(承文院製述官)에 임명하였으나 세태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만 두었다. 이후 백악산(白岳山)에서 은거하다가 15년 뒤에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의 천거로 북부참봉(北部參奉)이 되었는데 당시 성완의 나이는 65세였다. 1706년(숙종32)에 군자감 참봉, 1707년에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이 되고 곧이어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으로 옮겼다. 1709년에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에 임명되었다가 1710년 10월 22일에 운명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광주 수월리 수철동(水鐵洞)에 있다. 《研經齋全集 卷10 翠虛公墓誌》

취허²³⁾가 보여준 시의 운자에 삼가 맞춰 짓다

奉賡翠虛見示韻

한 수의 고아한 시 주옥같은데

一章高詠等琅琳

반복해 읽으니 영결한 마음 알겠네²⁴⁾

圭復正看英傑心

오늘 명사에게 의탁한 젊은 나그네²⁵⁾

今日攀龍少年客

맑은 풍채 삼가 보니 읊조릴 수 없네

拜觀清采不堪吟

복헌(復軒)

23) 취허(翠虛) : 성완(成琬)의 호이다. 위의 각주 참조.

24) 반복해……알겠네 : 성완의 시를 보고 그의 남다른 인품을 느꼈다는 말이다. 규복(圭復)은 《시경》 <억(抑)>의 “흰 구슬의 티는 갈아 없앨 수 있거니와, 말의 허물은 어찌할 수가 없다.[白圭之玷, 尚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인데, 공자의 제자 남용(南容)이 이 시를 하루에 세 번씩 되풀이하여 읽었던 고사가 있으므로, 복헌(復軒)이 성완의 시를 반복해서 읽어보았다는 뜻이다. 《논어(論語)》 <선진(先進)>에 “남용이 백규의 글을 세 번씩 되풀이하여 읽거늘, 공자가 형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아 주었다.[南容三復白圭, 孔子以其兄之子妻之.]”라고 하였다. 특히 성완의 자가 백규(伯圭)이기 때문에 이 고사를 인용하여 읊은 것이다.

25) 명사(名士)에게……나그네 : 복헌(復軒) 스스로를 가리킨 말이다. 반룡(攀龍)은 반룡부봉(攀龍附鳳)의 준말로, 제왕(帝王) 혹은 명사에게 몸을 의탁해서 명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양웅(楊雄)이 지은 《법언(法言)》 <연건(淵鶩)>에 “용의 비늘을 끌어 잡고 봉의 날개에 붙는다.[攀龍鱗, 附鳳翼.]”라고 하였다.

또 한 수를 복헌에게 주어서 화운을 요청하다

又贈一首復軒要和

과거 보던 난성보다 한 살 많은데²⁶⁾

添一蘭成射策年

홀륭한 자태와 전아한 명망 진정 시선이라네²⁷⁾

英姿雅望定詩仙

십주에 누가 삼신산의 달을 세웠는지

十州誰樹三山月

그대와 백 편의 시 짓기 좋다오

與子端宜做百篇

성취허(成翠虛)²⁸⁾

26) 과거(科擧)……많은데 : 복헌(復軒)의 나이가 16세라는 말이다. 난성(蘭成)은 북주(北周)의 문장가 유신(庾信, 513~581)의 어릴 적 자(字)이다. 그는 육조 시대의 최후를 장식하는 시인으로, 당대(唐代) 율시(律詩)의 선구가 되었으며, 서릉(徐陵)과 함께 서유체(徐庾體)로 일컬어졌다. 사책(射策)은 대책(對策)에 응시한다는 말로, 한(漢)나라 때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의 하나였다. 문제를 책(策)에 써서 함봉해 두고 응시자로 하여금 하나씩 가져가 답안을 바치게 하는 방식이었다. 《해록쇄사(海錄碎事)》 권19 <난성사책(蘭成射策)>에 “유신의 <애강남부>에 ‘왕자가 낙빈에 머물던 해이며 난성이 책문 쓰던 나이’라고 하였는데 옛《주서》에 이르기를 ‘사광이 낙양으로 주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왕자 진의 나이가 15세였고, 유신은 15세에 형주 수제로 천거되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난성은 유신의 어릴 적 자이다.[庾信哀江南賦, 王子洛濱之歲, 蘭成射策之年. 古周書云, 師曠聘周於洛陽, 王子晉時年十五, 信十五舉荊州秀才故云. 蘭成信小字.]”라고 하였다. 따라서 ‘蘭成射策年’은 15세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27) 꽃다운……하겠네 : 복헌(復軒)의 뛰어난 자질을 칭찬한 말이다. 시선(詩仙)은 두보(杜甫)를 시성(詩聖)이라고 일컫는 데에 대하여 이백(李白)을 시선이라 하였던 것인데, 여기서는 복헌이 시를 잘 짓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부른 것이다.

28) 성취허(成翠虛) : 성완(成琬)을 가리킨다. 6쪽 각주22 참조.

취허공²⁹⁾이 거듭 보여준 시에 삼가 화운하다

奉和翠虛公重示韻

맑은 모습 임술년에 뵈니 기쁘데
나약한 자질로 시선 뵈기 부끄럽네
서로 만나 언어 다른 것을 어찌 한하랴
마음 전하는 좋은 시 있는 것을

喜見淸容壬戌年
愧將弱質接騷仙
相逢何恨聲音異
言道心情有妙篇
복헌(復軒)

29) 취허공(翠虛公) : 성완(成琬)을 가리킨다. 6쪽 각주22 참조.

성 학사³⁰⁾에게 드리다

呈成學士

일찍이 조선의 풍의(風儀)에 대해 들었는데, 그 나라의 인물과 문재(文才)가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저는 조선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문장을 보고 오래된 저의 병통에 대해 물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저의 성은 산전(山田)이고, 자는 원흠(原欽)이며, 이름은 희(熙)로, 일본의 주방주(周防州, 스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지만, 기질과 성품이 나약하여 학문의 길에 나아가지 못했으니, 일찍이 성취하는 데 이르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우연히 이곳에 나그네로 왔다가 마침 공들이 귀국 대왕(大王)의 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시는 사이에 제가 전아(典雅)한 모습³¹⁾을 접하게 되었으며 문장도 보게 되었으니 비록 겸가(蒹葭)와 옥수(玉樹)의 부끄러움³²⁾이 없는 것은 아니나 또한 제 일생의 큰 행운이니 시로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 절구 한 수를 지어서 높은 안목을 가지신 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30) 성 학사(成學士) : 성완(成琬)을 가리킨다. ???쪽 각주??? 참조.

31) 전아(典雅)한 모습 : 지미(芝眉)는 상대방의 모습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당대(唐代)의 은사(隱士) 원덕수(元德秀)의 자는 자지(紫芝)인데, 현종(玄宗) 때의 명신(名臣) 방관(房琯)이 매양 원덕수를 보고 감탄하기를 “자지의 용모를 보면 그 모습이 사람으로 하여금 명리를 꾀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한다.[見紫芝眉宇, 使人名利之心都盡.]”라고 하였다 한다. 《新唐書 卷194 元德秀列傳》

32) 겸가(蒹葭)와 옥수(玉樹)의 부끄러움 : 변번참은 복헌(復軒) 자신이 세 사람의 인품과 문재(文才)에 비해 격이 떨어져 부끄럽다는 겸사(謙辭)이다. 위 명제(魏明帝)가 황후의 동생인 모증(毛曾)과 황문 시랑(黃門侍郎) 하후현(夏侯玄)을 같은 자리에 앉게 하자, 하후현이 자신의 초라함을 매우 부끄러워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서 “갈대가 옥나무에 기대었다.[蒹葭倚玉樹]”라고 평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容止》 여기서서 복헌 자신을 갈대[蒹葭]에, 세 사람을 옥수(玉樹)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부상의 동쪽 경계 하늘과 통하는데	扶桑東界與天通
문객이 찾아오느라 바람 거센 바다 건넜네 ³³⁾	文客尋來度海風
얼음 거울 같은 맑은 의표 일찍이 명성 들었는데	冰鑑清標素聞譽
명홍 쫓는 신비한 필력 실컷 보았네 ³⁴⁾	剩觀神筆逐冥鴻

임술년(1682, 숙종8) 8월에 복헌(復軒)

-
- 33) 부상(扶桑)의……건넜네 : 성완(成琬)이 험한 바다를 건너 일본에 왔다는 말이다. 부상(扶桑)은 동해(東海) 속의 신목(神木)으로, 해가 뜰 때 이 나뭇가지를 떨치고서 솟구쳐 올라온다고 한다.
- 34) 명홍(冥鴻)……보았네 : 성완(成琬)의 훌륭한 글 솜씨를 충분히 보았다는 말이다. 명홍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말하는데, 이는 곧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세상을 피해 은거하는 선비를 비유하는 말이다.

삼가 복헌이 보여준 시의 운자에 맞춰 짓다

謹次復軒示韻

내가 동도(東都)에 와서 며칠 동안 만난 여러 선비들을 이미 객관에
서 만나보았는데, 어진 인재들이 명(明)나라 때보다 많은 것을 보고 깊
이 감탄하였다. 뜻밖에도 지난번 복헌 공이 우리가 머무는 낡은 집에
찾아왔는데, 한 번 보고도 옥과 눈처럼 깨끗하고 맑은 용모와 훌륭한
글 솜씨³⁵⁾를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수창(酬唱)하는 즈음에
붓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았으니, 문(文)과 질(質)이 빈빈하게 조화를
이룬 군자(君子)³⁶⁾라고 할 만하였다. 나이도 열여섯 살이라고 하니 또
한 일찍 성취하여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하겠다. 또 장문 태수(長門太守)
가 뛰어난 글 솜씨를 지닌 인재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보여준 훌륭한 시³⁷⁾에 차운하여 화답한다.

만 리 뱃길 좌해에 이르게 되어

萬里仙查左海通

반가운 눈빛으로 고아한 풍모를 만나 보았네³⁸⁾

青眸開處揖高風

35) 훌륭한 글 솜씨: 금수(錦繡)는 훌륭한 문재(文才)를 가리키는 말이다. 1쪽 각주8 참조.

36) 문(文)과……군자(君子): 복헌(復軒)을 칭찬한 말로, 본바탕과 아름다운 문채, 즉 내용과 형식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 군자라는 뜻이다. 《논어(論語)》〈雍야(雍也)〉에 “바탕이 문채를 압도하면 촌스럽게 되고, 문채가 바탕을 압도하면 길치레에 흐르게 되나니, 문채와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라고 하였다.

37) 훌륭한 시: 경운(瓊韻)은 상대방의 시문(詩文)을 높이 부르는 말이다. 4쪽 각주16 참조.

38) 만 리……만났네: 성완(成琬)이 일본에 와서 복헌(復軒)을 만났다는 말이다. 선사(仙査)는 신선의 뱃목이라는 말로, 배를 의미한다. 좌해(左海)는 중국의 왼쪽 바다라는 말로 우리나라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왼쪽 바다라는 말로 동해 밖에 있는 일본을 의미한다. 청모(靑眸)는 푸른 눈동자라는 말인데, 반가운 눈빛을 의미한다. 진(晉)나라 때의 명사(名士) 완적(阮籍)은 세속의 법도에 구애받지 않고 지내면서 속사(俗士)를 대할 적에는 백안(白眼)으로 대하고, 고사(高士)를 대할 적에는 청안으로 대하였다. 완적의 어머니가 죽어 장사를 지낼 적에 혜희(嵇喜)가 가서 조문(弔問)하며 슬피 울었는데, 완적이 그를 속사라고 여겨 백안으로 보자

영재가 이룬 경지 내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만
위대한 공적 장차 대홍과 나란하리라³⁹⁾

英才成就吾何測
偉績將看竝大鴻
취허(翠虛)⁴⁰⁾

혜희가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 혜희의 동생인 혜강(嵇康)이 그 말을 듣고는 술과 거문고를 가지고 가서 조문하자, 완적이 몹시 기뻐하면서 청안으로 대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49 阮籍列傳》

- 39) 영재(英才)의……나란하리라 : 복헌(復軒)이 장차 얼마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지 자신의 능력으로 짐작할 수 없지만,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함과 동시에 복헌을 격려한 말이다. 대홍(大鴻)은 《사기(史記)》 권1 <오제본기(五帝本紀)>에 “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가 황제가 된 뒤에 풍후(風後), 역목(力牧), 상선(常先), 대홍(大鴻)을 등용하여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훌륭한 재상과 장수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 40) 취허(翠虛) : 성완(成琬)의 호이다. 6쪽 각주22 참조.

창랑 홍공⁴¹⁾에게 드리다

奉滄浪洪公

언어가 달라 한스럽지만

言語相違雖有恨

얼굴 뵈고 회포 펼칠 수 있어 좋구나

接眉可喜得伸懷

타국의 의취 같은 분을 이렇게 만났기에

殊邦同趣茲良會

변변찮은 글을 당신에게 올립니다

許把微詞薦閣臺

복헌(復軒)

41) 창랑(滄浪) 홍공(洪公) : 홍세태(洪世泰, 1653~1725)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도장(道長), 호는 창랑·유하(柳下)이다. 아버지 홍익하(洪翊夏)는 무관 출신이고, 어머니는 강릉 유씨(江陵劉氏)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했고, 특히 시(詩)에 뛰어났다. 1682년(숙종8)에 통신사 일행을 따라 일본에 갔는데, 왜인(倭人)들이 홍세태의 시와 글씨를 구해서 가보(家寶)로 보관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그의 초상을 문에 그려두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 백련봉(白蓮峯) 아래에 집을 짓고 유하정(柳下亭)이라 편액(扁額)을 걸었다. 중국에서 문장에 뛰어난 사람이 어떤 일로 의주(義州)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를 보고자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적임자를 선발하기가 어려웠는데, 당시 재상이 홍세태를 추천해서 보낼 만큼 시에 뛰어났다. 1725년 1월 15일에 향년 73세로 운명하였으며, 양주(楊州) 이말산(荊萊山)에 안장하였다. 《浣巖集 卷4 滄浪洪公墓誌銘》 통신사로 갔을 때 그의 직책은 부사 군관(副使軍官)이었다.

복헌 수재의 시에 차운하여 주다

次贈復軒秀才

우연히 타국에서 진실로 좋은 만남 이루어

異邦萍水眞奇會

시로써 오히려 회포를 말할 수 있네

詩句猶能當說懷

어찌하면 그대와 끝없이 노닐면서

安得與君游汗漫

산과 바다 곳곳의 누대를 읊어볼꼬

海山隨處詠樓臺

내가 객관에서 머물던 날, 한 소년이 찾아왔는데, 용모가 맑고 행동 거지가 단아하였으니 완전히 신선 세계의 사람 같았다. 그의 성품을 살펴보니 비단과도 같고 주옥과도 같았으며, 그가 붓을 놀리는 것을 보니 손 가는대로 써 내려가서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았으니, 뛰어난 인재였다. 소년시절에 성취한 바가 이와 같으니 훗날 성취할 수준을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글을 지어 내게 주기에 내가 곧바로 차운하여 준다. 그러면서 종이 끝에 몇 마디 말을 써서 그 재주를 칭찬하고 인하여 장문 태수(長門太守)가 이처럼 훌륭한 인재를 얻은 것을 축하한다.

임술년(1682, 숙종8) 8월에 창랑(滄浪)⁴²⁾이 서둘러 쓰다.

42) 창랑(滄浪) : 홍세태(洪世泰)의 호이다. 12쪽 각주41 참조.

모임 자리에서 복헌이 창랑에게 받은 시에 서둘러 화운하다
席上走和復軒見呈滄浪韻

인빈관에서 손님과 몇 번이나 수창했던가	賓賓館裡幾酬唱
백년 인생에 오늘 회포를 다 털어놓네	今日百年好開懷
만일 영재가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若遣英才生異域
왕양노락도 발밑에 두었으리 ⁴³⁾	王楊盧駱亦興臺
	송계조삼(松溪朝三) ⁴⁴⁾

43) 만일……두었으리 : 복헌(復軒)이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세상에 명성을 남기는 뛰어난 인재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왕양노락(王楊盧駱)은 당(唐)나라 초기의 사걸(四傑)로 일컬어지는 왕발(王勃)·양형(楊炯)·노조린(盧照隣)·낙빈왕(駱賓王)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두 문사(文詞)로 명성이 높았다. 여대(興臺)는 미천한 하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하등(下等)의 의미로 사용되어, 복헌이 네 사람보다 뛰어났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44) 송계조삼(松溪朝三) : 일본인인데 인적사항은 미상이다. 다만 다음 시의 아래에 그가 대주 태수(對州太守)의 유신(儒臣)이라는 설명이 있을 뿐이다.

내가 창랑에게 드린 시의 운자에 화운한 송계의 시에
화운하여 올리다

賡奉松溪見和予呈滄浪韻

평소 뛰어난 인재를 만나고 싶었는데	相見高材吾素志
멋진 자리에서 소회를 나누게 되었는데	依因好介得通懷
객관의 아름다운 시구 참으로 훌륭하니	館中佳句眞廣貴
말과 뜻이 모두 높은 옥대 ⁴⁵⁾ 와 같구나	語意都同層玉臺

송계(松溪)는 곧 대주 태수(對州太守)의 유신(儒臣)인데 그도 수창(酬唱)하는 자리에 있었다.

45) 옥대(玉臺): 전설 속에 나오는 천제(天帝)가 사는 곳으로, 하늘을 의미한다.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에 “천마가 오니, 용이 오게 할 매개로다. 창함에 서 노닐다가, 옥대를 바라본다.[天馬徠, 龍之媒, 游閭闔, 觀玉臺.]”라고 하였다.

9월 2일의 수창

九月初二日酬唱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관에 머무는 취허 성공⁴⁶⁾을 방문하다
雨中訪翠虛成公旅館

가을날 차갑게 비 내리는데 흥에 겨워 왔더니	秋日雨寒催興來
고즈넉한 시의 정취 뜨락에 가득하다	蕭然詩景滿庭涯
떠난다는 공 ⁴⁷⁾ 의 소식에 놀람을 의심하지 마소서	莫嫌驚起周公去
변변찮은 사람 자주 불러 영재로 대해 주셨지요	陋淺頻要接傑才
	복헌(復軒)

46) 취허(翠虛) 성공(成公) : 성완(成琬)을 가리킨다. 6쪽 각주22 참조.

47) 공(公) : 주공(周公)은 본래 서주(西周) 초기의 정치가로, 무왕(武王)의 아우이며 성왕(成王)의 숙부(叔父)인데, 춘추 시대에는 천자(天子)의 재경(宰卿)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성완(成琬)을 가리키는 말이다.

복헌이 보여준 시에 서둘러 맞춰 짓다

走次復軒示韻

옥수⁴⁸⁾ 같은 풍모 비를 맞고 왔기에
반가운 눈빛⁴⁹⁾으로 마주하니 더없이 기쁘구나
진당⁵⁰⁾에서 손잡고 맑은 수창 기약하여
다시금 동도의 뛰어난 인재 시험하네

玉樹風姿帶雨來
靑眸相對喜無涯
塵堂握手期淸唱
更試東都不世才
취허(翠虛)⁵¹⁾

48) 옥수(玉樹) : 경지(瓊枝)와 같은 말로, 재질이 우수한 인재를 비유하는 말이다. 여기 서는 복헌(復軒)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49) 반가운 눈빛 : 청모(靑眸)는 청안(靑眼)과 같은 말로, 반가운 눈빛을 의미한다. 11쪽 각주38 참조.

50) 진당(塵堂) : 이 자료에 진삼(塵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먼지 앉은 집이라는 의미이다.

51) 취허(翠虛) : 성완(成琬)의 호이다. 6쪽 각주22 참조.

또 복헌에게 주어 화운을 요청하다

又贈復軒要和

큰 고을에 훌륭한 인재 구름처럼 많은데

雄都巨擘儘如雲

남다른 그대의 재주 가장 사랑스럽네

最愛公才自不群

그대의 성대한 명성 국사를 초월하니

小行盛名超國士

기쁘다 강좌의 심휴문 만났구나⁵²⁾

悅逢江左沈休文

대관재(大觀齋)⁵³⁾

52) 기쁘다……만났구나: 문제(文才)가 뛰어난 복헌(復軒)을 만나 기쁘다는 말이다. 강좌(江左)는 양자강(揚子江) 하류(下流)의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진(晉)나라가 중원을 외적에게 빼앗기고 강좌 지역에 와서 동진(東晉)을 세웠는데, 동진과 남조(南朝)의 송(宋)·제(齊)·양(梁)·진(陳)의 근거지가 모두 이곳에 있었다. 휴문(休門)은 육조(六朝) 양(梁)나라 때의 저명한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심약(沈約, 441~513)의 자이다. 불교에 능통하였고, 음운(音韻)에 밝아 시의 팔병설(八病說)을 제창하여 근체시(近體詩)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궁체시(宮體詩)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南史 卷57 沈約列傳》 여기서서 복헌의 문제를 심약에 건주어 말한 것이다.

53) 대관재(大觀齋): 성완(成琬)의 호이다. 6쪽 각주22 참조.

성 학사⁵⁴⁾가 보여준 시에 삼가 화운하다

奉和成學士見示韻

아득한 푸른 바다 만 리에 구름 덮였는데

군계일학 같이 걸출한 분 뵈니 기쁘구나⁵⁵⁾

밝은 식감으로 지나치게 칭찬해 주시니

부족한 재주로 어찌 고문을 알겠는가⁵⁶⁾

渺渺蒼溟萬里雲

喜觀鸞鶴不鷄群

都慚明鑑枉褒譽

才短安能解古文

복헌(復軒)

54) 성 학사(成學士) : 성완(成琬)을 가리킨다. 6쪽 각주22 참조.

55) 아득한……기쁘구나 : 구름 덮인 먼 바다를 건너온 성완(成琬)을 만나 반갑다는 말이다. 난학불계군(鸞鶴不鷄群)은 닭에 섞이지 않는 난새와 학이라는 말로, 군계일학(群鷄一鶴)처럼 뛰어난 인재를 비유한 말인데, 여기서는 성완의 인품과 문재(文才)가 뛰어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6) 밝은……알겠는가 : 성완(成琬)이 복헌(復軒) 자신의 문재(文才)를 칭찬해 주었지만, 복헌은 칭찬에 걸맞은 인재가 아니라는 겸사(謙辭)이다. 명감(明鑑)은 분명한 감식안, 또는 명철한 식견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성완의 안목을 의미한다.

이 학사⁵⁷⁾에게 드리다

奉李學士

고상하고 심오한 재주와 능력 이미 보았으니
붓 내들러 글씨 쓰자 용이 읊조릴듯 하네
고금에 빛나는 좋은 글⁵⁸⁾ 얻기 원하노니
저를 위해 가시 자르고 마른 마음 적혀주시길

已觀才力到高深
筆落墨痕龍欲吟
願得瓊章煥今古
爲吾翦棘潤枯心
복헌(復軒)

57) 이 학사(李學士) : 이담령(李聃齡)을 가리킨다. 1쪽 각주5 참조.

58) 좋은 글 : 경장(瓊章)은 훌륭한 시문(詩文)을 가리키는 말로, 남의 글에 대한 미칭(美稱)이다.

복헌 수재에게 서둘러 사례하다

走謝復軒秀士

손 마주잡고 만나니 정취 깊어

握手逢場情味深

가을비 내리는 객관에서 한가로이 함께 읊조리네

客窓秋雨共閑吟

내일 헤어지고 나면 서글프리니

明朝別後堪惆悵

거친 글이나마 써서 내 마음 전하노라

爲寫荒詞贈我心

계추(季秋, 9월)에 이반곡(李盤谷)⁵⁹⁾

59) 이반곡(李盤谷): 이담령(李聃齡)이다. 1쪽 각주5 참조.

진삼⁶⁰⁾의 운자를 이용해 지어서 복헌에게 주다

用塵三韻 呈復軒案

가을 매가 날개 세워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듯	秋鷹整翮九霄雲
빠어난 신선의 자품 사랑스럽구나 ⁶¹⁾	爲愛仙姿迥不群
백설과 양춘은 진실로 화운하기 어려우니 ⁶²⁾	白雪陽春誠寡和
바다 동쪽에 천 년 만에 규성 빛나리 ⁶³⁾	海東千載耀奎文
	반곡(盤谷) ⁶⁴⁾

60) 진삼(塵三):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다.

61) 가을……사랑스럽구나: 복헌(復軒)의 재주와 자품이 훌륭함을 칭찬한 말이다. 추웅(秋鷹)은 가을 매라는 말인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임을 비유한다. 황정견(黃庭堅)의 <증조언(贈趙言)>에 “요양의 조방사는 눈이 가을 매와 같아라.[饒陽趙方士, 眼如九秋鷹.]”라고 하였다. 구소(九霄)는 하늘을 의미한다. 선자(仙姿)는 신선의 품모라는 말인데, 여기서의 복헌의 자품을 신선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62) 백설(白雪)과……어려우니: 복헌(復軒)의 시가 화운(和韻)하기 어려울 만큼 뛰어나다는 말이다. 백설과 양춘(陽春)은 모두 곡조 이름이다. 춘추 시대에 초(楚)나라에서 어떤 나그네가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의 노래를 부르자 수천 명이 따라 불렀고, 양아(陽阿)와 해로(薤露)의 노래를 부르자 몇 백 명이 따라 불렀는데, 양춘과 백설의 노래를 부르자 몇 십 명밖에는 따라 부르지 못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文選 宋玉對楚王問》

63) 바다……빛나리: 복헌(復軒)이 일본을 대표하는 문인이 되리라는 말이다. 규문(奎文)은 규성(奎星)의 빛을 말한다. 규성은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별로, 28수(宿) 가운데 하나인데, 고대부터 문치(文治)나 문운을 상징한다고 인식되었다.

64) 반곡(盤谷): 이담령(李耽齡)의 호이다. 1쪽 각주5 참조.

차운해서 복헌 수재에게 주다
次贈復軒秀士

창랑(滄浪)⁶⁵⁾

두 분의 고운 시편 그 글씨도 대단하니
안목 높아 천지 사이에 짝할 사람 없구나
이렇게 만났지만 내일이면 헤어질 터
담소하며 함께 문장을 논하네

兩君麗藻筆凌雲
高視乾坤思不群
邂逅卽知明日別
且將談笑共論文

65) 창랑(滄浪): 홍세태(洪世泰)의 호이다. 12쪽 각주41 참조.

거듭 앞의 운자에 맞춰 지어 창랑 홍자⁶⁶⁾의 시에 삼가
화운하다

重次前韻 奉和滄浪洪子

어의가 고상하여 구름 위로 높이 벗어난듯
빼어난 품격 발군의 솜씨로다
만나면 헤어질 줄 알고 있는 터
존음을 아끼가며 함께 문장 논하네

語意岑樓高出雲
卓然風格自超群
相逢料得還相別
愛惜寸陰共道文
복헌(復軒)

66) 창랑(滄浪) 홍자(洪子) : 홍세태(洪世泰)를 가리킨다. 12쪽 각주41 참조.

모임 자리에서 취허⁶⁷⁾와 봉명⁶⁸⁾과 창랑⁶⁹⁾ 세 분께 드려서 전별하다

席上贈翠虛鵬溟滄浪三子別

만나자 곧 이별이지만	相見便相別
잠시나마 학의 무리에 끼었네 ⁷⁰⁾	暫時入鶴群
언제나 다시 만나	何年重對面
좋은 시구를 공들에게 청할까	好句故勸君
은하수도 밝은 달과 함께 빛나고	河漢同明月
흰 구름 동쪽 서쪽 모두 있는데	東西共白雲
좋은 만남은 진실로 다시 이루기 어려워니	良逢眞不再
훌륭한 글 볼 때마다 그리우리	須想見雄文

임술년(1682) 가을에 복헌(復軒)

위에 기록한 것은 천화(天和) 임술년(1682)에 내가 조선에서 온 손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은 여러 작품인데, 소방씨(小方氏)의 요청에 따라 몽당붓으로 적은 것이다.

계해년(1683) 여름 5월에 복헌(復軒) 산전원음(山田原欽)

인장 : 산전씨원흠지인(山田氏原欽之印) / 복헌(復軒)

67) 취허(翠虛) : 성완(成琬)의 호이다. 6쪽 각주22 참조.

68) 봉명(鵬溟) : 이담령(李聃齡)의 호이다. 1쪽 각주5 참조.

69) 창랑(滄浪) : 홍세태(洪世泰)의 호이다. 12쪽 각주41 참조.

70) 학의 무리에 끼었네 : 복헌(復軒)이 성완(成琬), 이담령(李聃齡), 홍세태(洪世泰)와 어울려 시를 수창(酬唱)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이다. 학군(鶴群)은 학의 무리라는 말로, 복헌 자신은 닭[鷄]에 비유하고 세 사람을 학(鶴)에 비유하여 세 사람의 뛰어난 문재(文才)와 자품을 높이 표현한 것이다.

성 학사(成學士)의 이름은 완(琬), 별호(別號)는 취허(翠虛)이다. 다른 호는 해월헌(海月軒)·대관재(大觀齋)이다. 관직은 제술관(製述官)이다.

이 학사(李學士)의 이름은 담령(聃齡), 별호(別號)는 반곡(盤谷)이다. 다른 호는 봉명(鵬溟)·한주거사(漢洲居士)이다. 관직은 상상(上庠)이다.

홍세태(洪世泰)의 자(字)는 내숙(來叔), 별호(別號)는 창랑(滄浪)이다. 관직은 첨정(僉正)이다.

<조선통신사 수창시(朝鮮通信使 酬唱時)>(1682) 해제

홍 인 국*

1. 개관

이 자료(天和二年八月廿九日韓客酬昌詩軸)는 천화(天和) 2년 8월 29일에 일본인 산전희(山田熙)가 조선(朝鮮)의 통신사(通信使) 일행과 수창(酬唱)한 시를 필사한 것이다. ‘천화(天和)’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때 사용된 연호 가운데 하나로 1681년부터 1683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화(天和) 2년’은 1682년을 의미한다. 한객(韓客)은 삼한(三韓)의 손님이라는 말로,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조선인을 현지인들이 부르던 말이다. ‘수창(酬唱)’은 시가(詩歌)를 주고받으며 부른다는 의미이다. 시축의 첫머리에는 ‘8월 29일’로 명시되었지만 중간에 ‘9월 2일’에 수창한 시도 수록되었으므로, 사실상 8월 29일과 9월 2일 양일간에 걸쳐 수창한 시를 기록한 자료이다.

《숙종실록(肅宗實錄)》 8년 5월 6일 기사에 “대신(大臣)과 통신사(通信使) 윤지완(尹趾完) 등을 인견(引見)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5월 8일 기사에 “통신사(通信使) 윤지완(尹趾完)·부사(副使) 이언강(李彦綱)·종사관(從事官) 박경후(朴慶後)가 일본(日本)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82년(숙종8)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가 파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동덕여대 국사학과 강사, ratio1@dongduk.ac.kr

본 시축의 기록에 의하면 산전희(山田熙)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스스로 “저의 성은 산전(山田)이고, 자는 원흠(原欽)이며, 이름은 희(熙)로, 일본의 주방주(周防州, 스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지만, 기질과 성품이 나약하여 학문의 길에 나아가지 못했으니, 일찍이 성취하는 데 이르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이름과 출신, 소망을 밝혔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에 불과하였다.

수록된 작품은 칠언절구(七言絶句) 24수(首)와 오언율시(五言律詩) 1수(首)로, 총 24수(首)이다. 소서(小序)와 소발(小跋)을 함께 기록한 작품이 각각 2수(首)씩 있는데, 이 기록들은 본 시축의 생성 배경과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축의 마지막에는 “위에 기록한 것은 천화(天和) 임술년(1682)에 내가 조선에서 온 손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은 여러 작품인데, 소방씨(小方氏)의 요청에 따라 몽당붓으로 적은 것이다.”라고 하여 작성 경위를 적었으며, 한객(韓客)의 인물정보도 간략히 기록하였다.

2. 등장인물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한객(韓客)은 성완(成琬), 이담령(李聃齡), 홍세태(洪世泰)이다. 일본인으로는 이 자료를 작성한 산전희(山田熙)가 등장하고, 오언절구 1수를 지은 송계조삼(松溪朝三)도 있다. 진삼(塵三)과 소방씨(小方氏)도 일본인이 분명한데,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송계조삼(松溪朝三)에 대해서는 “송계(松溪)는 곧 대주 태수(對州太守)의 유신(儒臣)인데 그도 수창(酬唱)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산전희(山田熙)와 함께 통신사 일행을 만나는 자리에 참

석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소방씨(小方氏)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산전희(山田熙)에게 본 시축을 작성하도록 요청한 인물이다.

1) 성완(成琬, 1639~1710)

산전희(山田熙)는 “성 학사(成學士)의 이름은 완(琬), 별호(別號)는 취허(翠虛)이다. 다른 호는 해월헌(海月軒)·대관재(大觀齋)이다. 관직은 제술관(製述官)이다.”라고 기록하였다. 본 시축에서 성완이 산전희에게 준 시는 5수(首)이고, 산전희가 성완에게 준 시도 5(首)이다.

성완에 대한 정보는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집(研經齋集)》 권10에 수록된 <취허공묘지(翠虛公墓誌)>에 자세하다. 그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백규(伯圭), 호는 취허(翠虛)이다. 아버지 성후룡(成後龍)은 참봉을 지냈고, 어머니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딸이다. 1639년 3월 28일에 태어나 1710년 10월 22일에 운명하였다.

남노성(南老星, 1603~1667)과 정두경(鄭斗卿, 1597~1673)에게서 수학하였고, 1666년(현종7)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관직에 뜻이 없었던 그는 강령현(康翎縣, 현재의 황해남도 강령군 지역)에서 지냈는데, 1682년(숙종8)에 왜인(倭人)들이 통신사(通信使)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왔다. 당시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대제학으로 있었는데, 성해응의 글에 의하면 “문학에 뛰어난 인재를 엄격하게 선발하여 보내고자 하였으나 적임자를 얻기가 어려웠다. 공의 이름을 듣고 정성을 다해 불러내고자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의 문학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가 한양으로 갔을 때 당시 문학에 뛰어난 이들이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별서(別墅)에 있는 청휘각(淸暉閣)에 모여 성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완은 그들 앞에서 글을 지었는데, 그 글이 매우 뛰어났으므로 김수항이 곧바

로 숙종에게 아뢰어 저술관(著述官)으로 통신사 일행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에 갔을 때 그가 매우 신속하게 글을 짓자 왜인들이 “옛날 조자건(曹子建)은 일곱 걸음 만에 시를 지었는데, 공은 서너 걸음에 지으시겠습니다.”라고 하였고, 글씨도 잘 썼기 때문에 왜인들이 은화(銀貨)를 주고 구입하려 했다고 한다. 귀국한 뒤로 승문원 제술관(承文院製述官), 북부참봉(北部參奉),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2) 이담령(李聃齡, ?~?)

이담령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산전희(山田熙)의 “이 학사(李學士)의 이름은 담령(聃齡), 별호(別號)는 반곡(盤谷)이다. 다른 호는 봉명(鵬溟)·한주거사(漢洲居士)이다. 관직은 상상(上庠)이다.”라는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본 시축에서 이담령과 산전희(山田熙)는 각각 4수(首)의 시를 주고받았다.

3) 홍세태(洪世泰, 1653~1725)

한객(韓客)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된 인물은 홍세태이다. 산전희(山田熙)는 “홍세태의 자(字)는 내숙(來叔), 별호(別號)는 창랑(滄浪)이다. 관직은 첨정(僉正)이다.”라고 기록하였다. 두 사람은 각각 2수(首)의 작품을 주고받았다.

홍세태에 관한 기록은 정내교(鄭來僑, 1681~1759)의 《완암집(浣巖集)》 권4에 수록된 <창랑홍공묘지명(滄浪洪公墓誌銘)>에 자세하다. 그의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도장(道長), 호는 창랑(滄浪)·유하(柳下)이다. 아버지 홍익하(洪翊夏)는 무관 출신이고, 어머니는 강릉

유씨(江陵劉氏)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했고, 특히 시(詩)에 뛰어났다. 1682년에 통신사 일행을 따라 일본에 갔는데, 왜인(倭人)들이 홍세태의 시와 글씨를 구해서 가보(家寶)로 보관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그의 초상을 문에 그려두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 백련봉(白蓮峯) 아래에 집을 짓고 유하정(柳下亭)이라 편액(扁額)을 걸었다. 중국에서 문장에 뛰어난 사람이 어떤 일로 의주(義州)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를 보고자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적임자를 선발하기가 어려웠는데, 당시 재상이 홍세태를 추천해서 보낼 만큼 그는 시에 뛰어났다. 1725년 1월 15일에 향년 73세로 운명하였으며, 양주(楊州) 이말산(荊萊山)에 안장하였다. 문집으로 《유하집(柳下集)》 14권 6책이 전한다. 그의 문집 가운데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의 작품이 여럿 발견되지만, 본 시축(詩軸)에 수록된 작품이나 산전희(山田熙)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3. 내용

수창시(酬唱詩)는 한 사람이 시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시의 운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시를 지어서 되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한 자리에 모여서 시를 짓게 되고, 상대방의 시를 바로 차운(次韻)해서 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지어야 한다. 그 만큼 속작(速作) 능력도 필요하다.

산전희(山田熙)는 당시 16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 나이가 어렸고, 또한 조선과 일본의 관계로 인해 매우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반면 세 사람의 한객(韓客)들은 16세 소년의 빼어난 작품과 훌륭한 시재(詩才)에 적잖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러

한 배경으로 인해 본 시축(詩軸)에 수록된 8월 29일의 대다수 작품은 산전회가 한객의 훌륭한 인품을 칭송하고, 한객들은 그의 재능을 칭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산전회는 이담령에게 준 시에서 이담령을 ‘빼어난 사람[俊人]’, 그의 시를 ‘주옥 같은 글[玉篇]’로 표현한 반면, 스스로에 대해서는 ‘원홍의 어린 깃[鵠鵠弱羽]’으로 표현하였다. 이담령은 그 작품에 차운하여 산전회를 “옥과 눈처럼 맑은 의표 세속 사람과 다르구나.[玉雪清標拔俗流]”라고 하여, 산전회의 고상한 자질을 칭찬하였다. 다른 작품에서 산전회는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연석(燕石)’이라 했지만 이담령에 대해서는 ‘연성(連城)’과 ‘백벽(白璧)’이라 하였다. 이처럼 서로의 인품과 재능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성완(成琬)은 “과거 보던 난성보다 한 살 많은데, 꽃다운 자태와 전야한 명망 지녔으니 진정 시선이라 하겠네.[添一蘭成射策年, 英姿雅望定詩仙.]”라고 읊었다. 불과 16세에 불과한 산전회가 뛰어난 작품을 지니고 있으며 시에도 뛰어나므로 그를 ‘시선(詩仙)’이라 추켜세웠다. 이에 대해 산전회도 성완을 ‘소선(騷仙)’이라 칭송하였다. 다른 작품에서 성완은 “영재의 성취를 내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만, 위대한 공적 장차 대홍과 나란하리라.[英才成就吾何測, 偉績將看竝大鴻.]”라고 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자질을 지닌 산전회의 성취를 기대하는 말로, 그를 칭찬하였다.

8월 29일의 작품이 첫 만남의 자리에서 서로를 칭송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면,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9월 2일의 작품은 주로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이다. 이담령은 “내일 헤어지고 나면 서글프리니, 거친 글이나마 써서 내 마음 전하노라.[明朝別後堪惆悵, 爲寫荒詞贈我心.]”라고 했고, 홍세태는 “이렇게 만났지만 내일이면 헤어질 터, 담소하며 함께 문장을 논하네.[邂逅即知明日別, 且將談笑共論文.]”라고 하여 이별을 안타까워하였다. 이에 대해 산전회는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 촌음을 아끼며 함께 문장 논하네.[相逢料得還相別, 愛惜寸陰共道文.],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별이지만, 잠시나마 학의 무리에 끼었네.[相見便相別, 暫時入鶴群.] 언제나 다시 만나, 좋은 시구를 공들에게 권할까.[何年重對面, 好句故勸君.]”라고 하여 이별을 아쉬워하였다.

두 나라 사람의 만남, 연령차가 있는 사람의 만남, 문화적 우열 의식이 있던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만남 뒤에 이별이 있었기에 그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각 작품의 내용은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 초면의 인사(人事)들이 마주한 자리에서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상호 칭찬으로 이어지는 단순함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시축(詩軸) 뿐 아니라 수창시의 보편적 성격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로 인해 자료의 가치를 절하(切下)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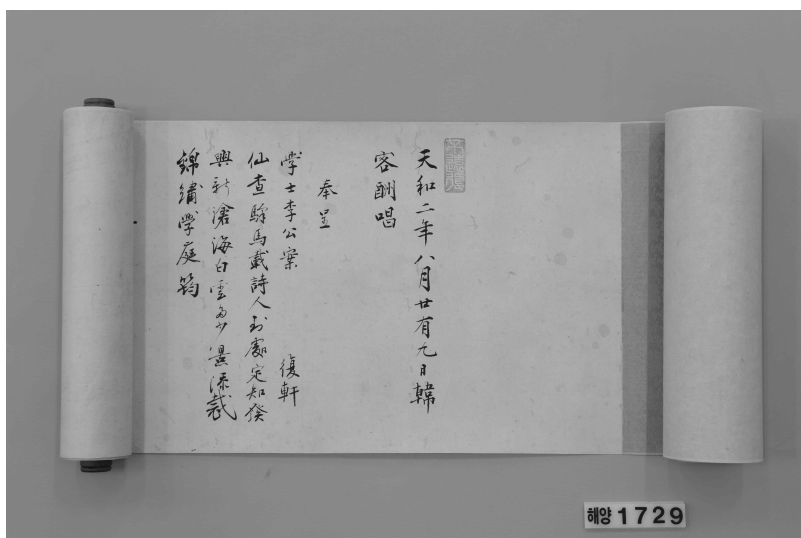
4. 가치

자료의 가치는 자료 자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 자료와 연관된 인물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자료의 희소성(稀少性) 또한 자료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본 시축(詩軸)의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없다. 자료를 만든 산전희(山田熙)는 영재(英才)·수재(秀才)로 칭찬받았지만, 그 이후 일본에서의 활약은 뚜렷하지 않았다. 한객(韓客)으로 등장하는 세 사람 역시 조선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통신사(通信使)에 관한 기록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희소성도 말할 것이 못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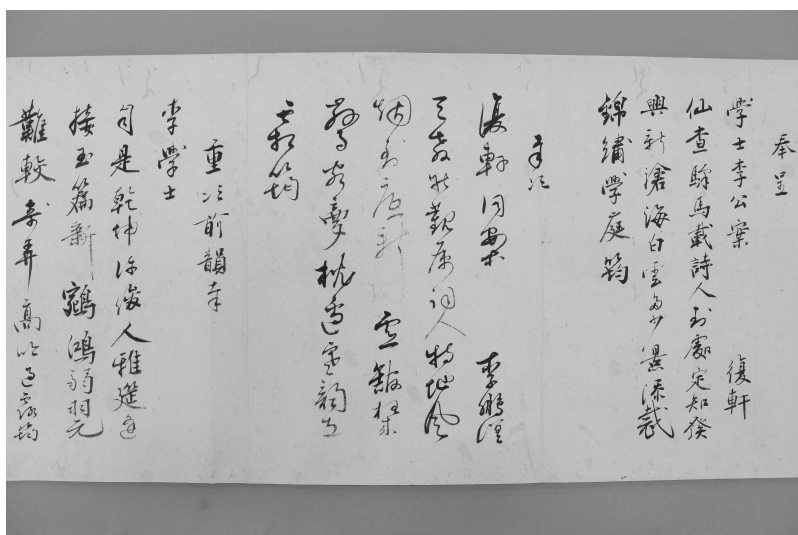
그러나 역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기록이라는 점, 이 시축의 작품들을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매우 귀중하다. 저명(著名)한 인물들의 자료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잘 알려

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축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자료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자료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문화와 역사는 시대의 주류(主流)에 편중되면서 많은 여백을 남길 수밖에 없다. 주변인(周邊人)들의 자료가 여백을 채울 때 문화와 역사는 풍부해질 수 있으며 실체에 보다 더 근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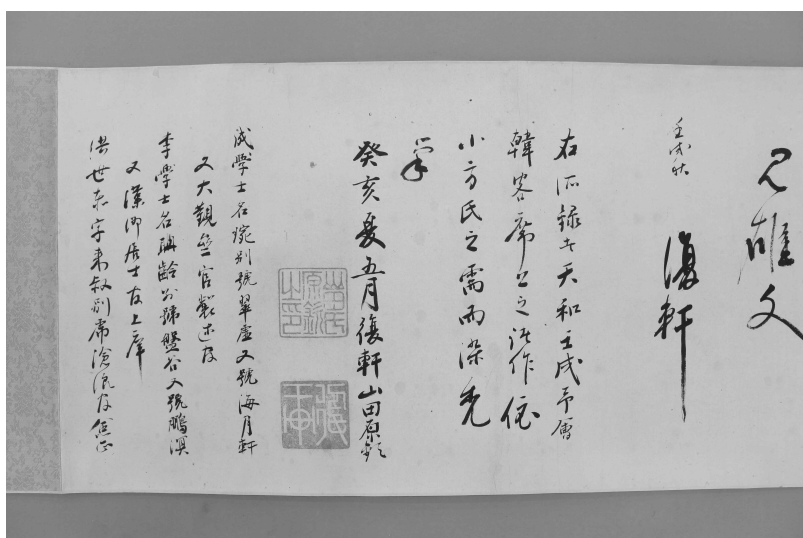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본 시축은 1682년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일행의 행적과 활동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향후 국사편찬위원회에 “天和二壬戌年 就朝鮮信使來聘 京都所司代稻葉丹後守殿より來狀”을 비롯하여 이 시축과 관련된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해당 자료들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진 1> <수창시> 일부



<사진2> <수창시> 일부



<사진3> <수창시> 일부